

시인 윤동주의 소설적 형상화 연구*

김명석**

1. 서론
2. 윤동주 소설화와 그 계보
3.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
 - 3-1. '시 읽기'에서 '사람 읽기'로: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
 - 3-2. 사실과 허구의 경계 넘기: 유광수의 『윤동주 프로젝트』
 - 3-3. 민족 시인과 인류의 시인 '사이': 구효서의 『동주』
4. 결론

국문요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시인 윤동주의 형상화 고찰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부터 현재시점에서 윤동주 사망의 비밀을 추적하는 픽션까지 크게 두 계보로 나눌 수 있다. 윤동주를 최초로 소설화한 최인수의 『소설 윤동주』부터, 안도섭의 『윤동주, 상처 입은 혼』, 안소영의 『시인/동주』에 이르기까지 윤동주의 생애를 온전히 재구하는 작품들은 연구서와 평전에서 밝혀진 사실에 살을 붙여 자연스럽게 윤동주의 삶과 시 세계를 접하게 해주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기존의 민족시인 이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인물 창조에 이르지 못했다. 윤동주의 시대가 가진 특성이나 당시 청년들의 희망과 좌절을 묘사했지만 전기적 사실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결과이다. 한편 윤동주의 전 생애보다 일본에서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에

* 이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는 조한주의 『저항시인 윤동주 그 죽음에 대한 보고서』가 시발점이 된다.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의 결합을 추구하는 팩션 장르의 출현 이후 추리소설적 기법으로 윤동주의 미스터리를 다루면서, 윤동주라는 상징을 통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작품들이 탄생했다.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은 윤동주 시 읽기와 사람 읽기를 통해 문학적 진실을 추구했다. 유광수의 『윤동주 프로젝트』 역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과거와 현재,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윤동주라는 이름을 다시 환기시켰다. 구효서는 블로그소설 『동주』를 통해 블로그 공간의 독자들과 윤동주는 지금 우리에게 누구인가 대화를 나누면서,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저항시인에서 나아가 민족성을 넘어 보편성을 추구한 인류의 시인으로 그려내었다.

결론에서는 추리소설적 기법이 윤동주 형상화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잃어버린 기록을 뒤쫓는 팩션의 창작 원리를 활용해 윤동주의 옥중시, 경찰 조서, 번역 원고를 찾는 과정에서 윤동주는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각 소설의 구조이다. 대중적 추리소설과 순수소설의 경계를 허무는 이들 작품은 범인이 누군가보다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에 집중하며, 평범한 주인공이 뛰어난 탐정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동주의 힘이 작용한다. 우리에게 시와 언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지키는 도구요, 윤동주는 생애와 시작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며 한 민족과 전 세계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추리소설적 구조는 독자의 흥미 유발을 넘어서 오늘의 독자에게 윤동주의 현재적, 그리고 보편적 의미, 그리고 시와 언어의 가치를 묻는 문학적 대화이기도 하다.

(주제어: 윤동주,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유광수, 『윤동주 프로젝트』, 구효서, 『동주』, 블로그소설)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시인 운동주의 문학적 형상화와 변모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의 한 명인 운동주는 한국 소설에서 가장 널리 등장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운동주의 삶은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실명 소설부터 현재 시점에서 운동주 사망의 비밀을 추적하는 픽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운동주 사망 70주기를 맞은 지난해를 전후하여 여러 문학지의 특집과 두 편의 소설, 『운동주 평전』 3차 개정판 등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뮤지컬¹⁾과 영화²⁾로 장르와 매체를 확장하여 형상화되고 있다. 종로구의 수도시설을 운동주 시 속의 우물로 되살려 낸 운동주문학관의 방문객들도 이어지고, 특히 2016년 초에 운동주 시집 초판의 복제판³⁾이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일종의 운동주 현상이 재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일간의 긴장과 화해라는 사회적 상황이 문학 독자들의 민족 감정을 되살렸다는 판단은 단순한 진단일 것이다. 이 시대에 새롭게 운동주를 소환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책 광고나 영화 및 공연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민족시인, 저항시인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문화적으로 한층 세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독자나 관객들에게 자아내는 감정은 과거 지향적이

1)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권호성 연출, 한아름 극본, 오상준 작곡)가 2012년 8월 예술의 전당에서 근대가무극 시리즈로 초연되었고, 2016년 3월에 재공연 예정이다. 또한 연희단 거리패의 창작뮤지컬 〈서시〉(이채경 대본/연출, 이수연 작곡)가 2014년 11월 계림라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는 운동주 역의 강하늘, 송몽규 역의 박정민이 출연하여 2016년 2월 16일 개봉되었다.

3) 운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와다리, 2016.

다. 운동주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소비되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내면에 운동주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새로운 작품들이 여전히 기존의 민족시인 이미지에만 고착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 회귀 성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나온 구효서, 이정명, 유광수의 작품이 보여준 확장된 시야에 비해 오히려 퇴행한 측면이 있다. 위의 세 작품들은 추리 기법으로 대중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운동주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와 언어, 역사에 대한 다양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운동주를 그린 소설들은 어떤 계보에 속하든 기존의 작가론과 평전에 의한 연구 성과의 축적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학자들에 의해 기술된 작가론이 아닌 후배 문인들에 의해 씌어진 또 다른 형태의 작가론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동주는 한국 작가들에게 자신의 문학을 비춰보는 거울이요,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별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작가들이 꾸준히 운동주에게 응답하는 데 반하여 이들 작품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생체실험에 희생되었다는 그 죽음의 미스터리를 비롯하여 더 밝혀져야 운동주에 관한 ‘사실’과 함께 운동주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문학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구효서, 이정명의 작품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장영우는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운동주 70주기 기획특집에서 장영우는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운동주는 현대문학 연구가들의 내재적 열망에 의해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운동주 측근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기억과 증언으로 재구성된 삶이 복간도와 연희전문 시절로 한정되면서 ‘순수저항시인’의 상을 부조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활을 소설적으로 재해석한 구효서와 이정명의 두 편의 소설을 통해 사실적 기록만으로는 복원할 수 없었던

시인의 전모, 즉 우리가 기억하는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와 다른 새로운 윤동주 상(像)을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⁴⁾ ‘윤동주 시는 저항시인가?’ 라는 의문은 사건 기록 발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경재 역시 구효서의 『동주』가 윤동주를 민족저항시인의 차원을 넘어 인류사적 보편 과제를 수행한 인물로 재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⁵⁾ 이러한 문제제기는 윤동주가 민족시인이나 저항시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정한다기보다는 시인의 생애, 즉 작품 ‘밖’에서부터 매겨진 수식어에 얽매었던 과거의 획일적 관점에서 벗어나 윤동주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볼 때 보다 자유로운 시 해석이 가능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윤동주는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은 밝혀질 수 있을 만큼 밝혀졌다고 보고, 이제 질문을 바꿔 ‘우리에게 윤동주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동주가 전해주는 ‘진실’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민족적 저항시인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고, 새로운 윤동주 상이 요청될 시대가 있다. 민족주의의 시대에는 그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족적 저항시인으로서의 윤동주를 소환했다면, 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문학인들에게 요청되는 윤동주의 상은 무엇인지, 과연 이 소설들이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작품 ‘안’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 것이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면 그 진실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독교인 윤동주를 기억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신약성서의 말을 빌려보자. 윤동주의 죽음과 같이 아직도 덜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상상력이다.

4) 장영우,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진실」, 『월간 문학』 558호, 2015.8, 273-275쪽.

5) 이경재, 「사이의 향락」, 『자음과 모음』, 2011 겨울, 571-572쪽.

동주는 보이지 않는 민족의 미래를 믿었고, 동주의 시는 그가 바라는 세계의 실상(實像)이다. 이것이 동주의 시적 진실이다. 문학적 진실은 '실(實)'이 아니라 '상(像)'을 통해 현현된다. 동주를 형상화한 소설가들의 진실이 또한 그러하다. 한편으로 '진실'은 미리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작품 안에, 독자 안에서 구성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운동주를 원하고 있는가. 문제의식은 현재적이되 답은 철저히 작품에서 찾자는 것이 운동주의 시 해석이나 그에 대한 소설 해석에 접근하는 연구자의 입장이다.

2. 운동주 소설화와 그 계보

운동주의 소설적 형상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시인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애 전체를 재구하는 전기적 형태의 소설이다.

운동주를 주인공으로 삼은 최초의 소설은 최인수의 『소설 운동주』(1985)⁶⁾이다. 이 작품은 KBS 라디오 '인물현대사' 시리즈로 방송된 연속 드라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작소설이다. 운동주가 용정에서 중학 졸업반을 마치고 문학에 뜻을 품고 연희전문에 진학을 결심할 무렵부터 일본에서 사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를 다루며, 운동주의 42편의 시가 인용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기존의 작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이외의 허구적 상상

6) 최인수(崔仁樹, 1930~)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196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감나무골의 공서방(孔書房)〉으로 등단했다. 이후 라디오 드라마 〈여인극장〉, 〈소설극장〉 시리즈와 TV드라마 〈소망〉 등을 집필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면서 장편소설 『향나무의 꿈』, 『목시의 날개』를 발표했다. 1985년 초판이 나온 『소설 운동주』(상서각)은 2011년 『민족시인 운동주』(집문당)으로 재간행되었다.

력을 발휘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윤동주 시에 나오는 여성인 '순이'를 용정에서 이웃에 살던 누이동생 윤혜원의 친구로 등장시킨 점과 연희전문 시절 함께 협성교회⁷⁾에 다니며 교류한 강선영의 존재이다. 절친 강처중이 쓴 윤동주 초판 발문의 “그는 한 여성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 사랑을 그 여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끝내 고백하지 않았다. 그 여성도 모르는 친구들도 모르는 사랑을 회답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사랑을 홀로 간직한 채⁸⁾”라는 구절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다. 〈사랑의 殿堂〉(1938)에 나오는 ‘순(順)’과 〈少年〉(1939), 〈눈 오는 地圖〉(1941)에 나오는 ‘순이(順伊)’는 윤동주가 좋아했던 특정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기보다 일종의 보통명사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순이와 선영은 라디오 작가로서 대중들을 상대해왔던 작가가 뚜렷한 연애 경력이 밝혀진 바 없는 윤동주의 생애에 독자들의 흥미를 높이려는 의도로 설정한 인물들이다. 윤동주의 여성 관계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소설적으로 이용하려했지만 작품 내 서사 전개에서 이웃 동생이나 친구 이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둘째는 일제말의 상황에서도 우리말로 시를 쓴 윤동주의 정신을 강조하고자 외설 최현배와의 만남을 강조한 점이다. 최현배와 윤동주가 스승과 제자로 만난 것은 윤동주가 연희전문에 입학한 1938년 4월초로 이

7) 협성교회는 1931년 연희전문 내에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연합으로 설립한 연희협성교회가 1935년 이화여전이 정동에서 대현동으로 이사해오자 두 대학이 한곳에서 연합예배를 보자는 취지로 설립한 교회로서 새로 준공한 이화여전 에머슨관(현 중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박정세, 『한국 대학교회의 태동과 변천-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쁨으로 선을』, 킹덤그레이트, 2016, 234-261쪽 참조.) 강선영은 북아현동에 살던 부친의 지인 강준태의 딸로 등장하는데 작품 중 선영이 동주에게 예배 후 케이블 목사님 부인이 지도하는 영어성서반에 나오라고 권하는 장면은 당시 연전에서 종교활동을 지도하던 케이블도 실존인물이기에 두 사람의 교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8)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70쪽.

때 최현배의 나이는 44세였다. 소설 속에서는 외솔의 제자로 『우리말본』으로 조선어를 배우고, 외솔의 해직과 구속을 전후해 송몽규와 더불어 행촌동 외솔 선생 댁을 계속 찾아뵙는 것으로 나오지만 외솔과의 개인적 친분은 실제로는 확인할 없는 부분이다.⁹⁾ 이러한 설정은 민족시인 운동주의 우리말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운동주의 모국어 관념 형성에 미친 최현배의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그의 조선어 강의를 한 달간 들은 후인 1938년 5월에 쓴 〈새로운 길〉 이후 한글전용체의 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¹⁰⁾

최인수는 시인에 대한 자료들이 미비한 당시 여건에서 동생 윤일주와 누상동 하숙 주인이었던 작가 김송의 증언까지 참고하며 시인의 생애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구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1985년이란 시점이 여전히 냉전 시대였던 까닭으로 운동주의 절친이자 유고 시집 발행의 주역인 월북 인사 강처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¹¹⁾ 또한 일본 유학 시절 활동상이나 검거 및 재판 기록 역시 자료 미비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이후 새로 발견된 자료와 작가 연구 및 평전 저술을 기초로 전기적

-
- 9) 주변의 증언이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외솔의 강의를 함께 들은 유영의 “외솔 선생의 『우리말본』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고 또 영광스러웠고 연희 동산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동주가 얼마나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지, 항상 앞자리에 앉던 동주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라는 회고이다. 유영, 『연희전문 시절의 운동주』,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22-126쪽 참조.
- 10) 송희복, 『모국어의 순교자여, 창밖에 있거든 두드려라』, 유양선 외, 『운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다시올, 2015, 280-281쪽.
- 11) 1988년 열음사에서 나온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 초판에서도 강처중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사상성 시비를 우려한 윤일주 교수가 자료 제공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냉전 체제 붕괴와 해금을 거치며, 1998년 세계사 개정판에서 강처중이 처음 언급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강처중의 가족 이강자의 증언을 통해 2004년 푸른역사 재개정판, 2014년 서정시학 3차 개정판에서 관련 내용이 갱신, 보완된다.

사실을 보강한 작품들이 윤동주 70주기를 전후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안도섭은 2014년 『윤동주, 상처 입은 혼』(글누림)에서 명동소학교 시절부터 죽음과 생체 실험까지 다루면서 민족시인의 면모를 부각시킨다. 2015년에 나온 안소영의 『시인/동주』(창비)는 1938년 연희전문 입학부터 1948년 추모 시집이 발간되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연희전문 시절 강제중, 정병욱과의 교우 관계와 유학 시절 및 추모 시집 출간 과정을 어느 작품보다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도 김혁의 소설 『시인 윤동주』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변문학』에 연재되었다. 작가는 윤동주 생가, 모교, 묘소에서 자취를 찾아보고, 역사적 사실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인이 처한 시대의 암흑성을 부각시키며, 인간 윤동주를 시대적 아이콘으로 각색하고자 했다.

둘째로 윤동주 소설화의 또 다른 경향은 윤동주 사망의 비밀을 풀어가는 추리소설 형식의 작품 등장이다.

1990년 소설가 조한주가 『저항 시인 윤동주 그 죽음에 대한 보고서』(남도)를 출간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암시해주듯이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 윤동주가 생체 실험 대상이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K신문 동경특파원 문오달의 현지 취재를 통해 그 사인을 추적하는 추리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5년 먼저 출간된 최인수의 『소설 윤동주』에서는 상세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일본에서의 윤동주 행적과 사인을 집중 조명했다는 점과 윤동주를 주인공으로 한 일대기 형식이 아니라 1990년 현재 시점의 등장인물이 사망의 비밀을 추적하는 점, 윤동주가 교토 시절에도 시를 썼으리라는 가정과 경찰서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일어로 번역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사라져버린 시 원고를 추적하는 점, 함께 체포된 송몽규나 고희옥뿐만 아니라 같은 다께다 아파트에서 하숙하

던 김일룡과 같은 조선인들과 검찰조서 및 재판기록에 등장하는 특고 경찰 코오로기 순사부장 등 일본 측 인물들의 실명을 사용하면서 과거의 실존인물들과 문오달 기자와 같은 현재의 허구적 인물들을 동시에 작중에 등장시킨 점 등은 오늘날의 팩션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작품의 시간구조는 이중적인데, 일본 사법대신 야나기와 중장의 국방보안법 제정 기자회견과 불령선인 제거론으로 시작한 프롤로그와 운동주의 체포와 조사 광경을 묘사한 첫 장을 지나면 시간은 현재로 뛰어넘어와 문오달 기자가 서울 본사의 요청으로 운동주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작품 내에는 취재 준비 조사를 이유로 창작 시점까지 한일 양국에서 발굴된 각종 기록들이 마치 논문처럼 직접 인용되어 있으며, 재판 기록 같은 경우는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등 소설 형식을 빌렸지만 오히려 제목에 나왔듯이 ‘보고서’로서의 실증적 성격을 띠고 있다.¹²⁾ 자료에 나온 하숙집(터), 대학, 형무소, 도서관, 대학병원 등의 장소와 증인을 찾아 한 발자국씩 추적해나가는 취재 과정이 작품의 서사구조가 된다. 운동주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 발굴은 아니지만, 식민지 말기 일본 내 조선인 치안유지법 관련사건과 B29 탑승 미군 8명에 대한 구대(九大) 생체 해부사건 등의 자료들을 폭넓게 연결하고 해석하면서 운동주 사망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운동주가 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에서 생체실험 주사를 맞은 후 어머니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죽는 장면과 에필로그에서 문오달의 취재 소감으로 작품은 마무리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취하면서도,

12) 이 작품은 운동주가 체포된 교토의 ‘시모가모(下鴨)’ 경찰서를 ‘시다카모’로 표기하거나 용정시절 은진중 은사인 ‘명희조’ 선생을 ‘명의조’로 표기하는 등 지명과 인명상의 몇몇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고증에 충실한 편이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제목에 붙인 ‘저항시인’이라는 수식어처럼 이 작품 역시 윤동주가 일본 식민통치에 어떻게 저항하고 희생당했는지를 밝히는 데 작품의 목적이 있다. “독립운동의 구체적 사례가 밝혀진다면, 저항 시인으로서의 윤동주에 대한 평가는 다시 쓰여져야 마땅하다. 단지 시를 통해 일제에 항거한 관념적인 저항 시인으로서일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일제에 맞서 싸운 용감한 투사이기 때문이다.”¹³⁾라는 문오달 기자의 취재 목적이 바로 조한주 작가의 창작 목적을 대변한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송우혜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우리 문학계의 윤동주의 생애와 시의 저항성에 대한 폄하 현상, 즉 “평생 공부만 했던 윤동주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일본 유학생으로서 일제의 과잉 단속에 걸려 불우하게 옥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새로운 대세를 이루자 그 오류를 바로 잡고자 송몽규와 윤동주의 체포 및 재판에 대한 글을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윤동주 평전 작업에 이르게 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바 있다.¹⁴⁾ 그러나 윤동주가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증언이나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작품의 결말과 “자기네들의 치부는 결코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일본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주변 국가들의 침략 행위도 할 수만 있다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¹⁵⁾이라는 주인공 문오달의 지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일본 정부와 보수층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한결 같은 부인과 함구, 비협조 속에서 일본이 바라는 망각의 역사에 대항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윤동주의 시와 죽음이다. 진정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창씨를 한 윤동주

13) 조한주, 『저항시인 윤동주 그 죽음에 대한 보고서』, 남도, 1990, 82쪽.

14) 송우혜, 『윤동주 평전에 담긴 뒷이야기』, 『윤동주 평전』(제3차 개정판), 서정시학, 2014, 506-507쪽.

15) 조한주, 『저항시인 윤동주 그 죽음에 대한 보고서』, 남도, 1990, 306쪽.

가 아니라 창씨를 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다. 한편 작품에서는 역사란 그것이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문오달의 설득에 자신이 발견한 기록을 제공하며 운동주 시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후지와라 사서와 같은 인물을 통해 운동주의 시가 일본 독자들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하게 된 근간의 변화와 나아가 운동주가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이 소설은 일본 시절 전기적 생애를 재구한다는 측면이나 민족적 저항 시인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분류한 작품들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지만, 추리소설적 기법으로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차별화 된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운동주 소설화의 신경향을 선도하였다. 한편 시를 쓰는 운동주에게 호감을 보였던 후쿠오카 감옥 간수나 구주의대의 미군 생체실험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대목은 이후 이정명에게서 서사를 구축하는 중요 아이디어로 재등장해 상호텍스트적 의미가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팩션 장르 출현의 영향으로 단순히 운동주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지 않고, 다양한 소설적 상상력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2011년 구효서가 네이버 블로그에 소설 『동주』를 연재했고, 다음해인 2012년 7월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 9월에는 유광수의 『운동주 프로젝트』가 연이어 출간되었다. 이들 세 작품 모두 비교적 베일에 싸인 일본 유학 시절이나 후쿠오카 감옥에서의 의문사를 배경으로 하여 널리 공개된 전기적 사실로부터 부담을 덜고,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또 운동주를 직접적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그를 곁에서 관찰하거나 그의 비밀을 추적하는 현재의 화자를 통해 운동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동주 시의 번역본과 산문 원고가 존재하리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동주』, 윤동주가 수감 중인 감옥에서 벌어진 간수 살해 사건의 비밀을 풀어가는 『별을 스치는 바람』, 윤동주의 숨겨진 아들과 차기 천황 계승 음모를 파헤치는 『윤동주 프로젝트』는 모두 이제까지 전혀 밝혀진 바 없는 허구를 다루면서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미, 즉 지금 우리에게 윤동주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윤동주 시인의 소설적 형상화는 지난 약 40년간 두 개의 계보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동주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재구한 첫 번째 작품들보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윤동주를 재조명한 두 번째 작품들에 주목하여, ‘시인은 누구이며,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다룬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 현재를 배경으로 여전히 이어지는 한일간의 대립 속에서 윤동주의 비밀을 추적하는 유광수의 『윤동주 프로젝트』, 윤동주의 인간적 면모보다는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구효서의 『동주』를 대상으로 시인 윤동주의 소설적 형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

3-1. ‘시 읽기’에서 ‘사람 읽기’로: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의 출발점은 윤동주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다. 윤동주의 사인이 생체실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만 시신을 인도하려 간 가족들에게 남긴 송몽규의 증언 외에는 구체적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그 누구도 그런 비

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증거도 증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말이 없다. 이 소설의 구조는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서두와 마지막에 인용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법무부 검찰과의 미 공군 조종사 실종 사건 조사’와 ‘미 공군 B29 비행사 생체실험 관련 일본인 전범 처리에 관한 비밀문서 요약’이라는 두 개의 기밀문서 사이에 작품의 서사를 삽입시키고 있다.¹⁶⁾ 후쿠오카 형무소 간수병으로 전후에 포로 학대로 기소된 화자인 ‘나(와타나베 유키치)’가 미군검찰관에게 자신의 죄를 진술하는 조서가 소설의 내용이 된다.

어느 날 후쿠오카 형무소 3수용동의 악명 높은 간수 스키야마에게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주머니에서 발견된 시 한 편이 유일한 단서가 된다. 3수용동은 반일 조선인 사상범과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수사를 맡은 와타나베가 범인을 찾기 위해 살해된 스키야마의 비밀을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645번 히라누마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소리 없이 심문실 문이 열리고 645번이 들어섰다. 반듯한 그의 얼굴은 침침한 공간과 완벽하게 이질적이었다. 박박 민 머리와 가지런한 눈썹 때문에 그의 이마는 더욱 반듯해 보였다. 꼬리가 긴 눈은 깊은 우물 같았다. 반듯한 콧날은 섬세한 동시에 강인했다. 부르튼 입술은 새긴 것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다.¹⁷⁾

645번 히라누마, 즉 운동주의 첫인상은 기존의 운동주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운동주의 사진을 연상시키는 섬세한 문장력으로, 반듯한

16) 큐슈대학 생체 해부사건이나 혹은 요코하마 재판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58년 엔도 오 슈우사꾸에 의해 소설화되었고, 『바다와 독약』(창비, 2014)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국내에서도 앞서 조한주의 작품에서 언급된 바 있고, MBC <그것이 알고 싶다(727회) - 운동주, 그 죽음의 미스터리>(2009.8.15.)에서도 소개하였다.

17)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 은행나무, 2012, 84쪽.

얼굴, 반듯한 이마를 통해 시인의 반듯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반듯한 낫날이라는 외양 묘사는 섬세함과 강인함이라는 일견 상반된 성격이 결합된 외유내강형의 성품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눈을 ‘깊은 우물’로 비유한 것은 〈자화상〉의 우물 속 사나리와 겹쳐지는 효과가 있다. 와타나베의 임무는 시를 읽고 그 사람을 읽어내는 일이다.

“언어는 한 인간의 총합이오, 한 인간의 언어는 그의 지문과 같소. 그의 출생과 성장, 기억과 과거를 모두 간직하고 있죠. 〈자화상〉과 〈참회록〉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와 같소. 당신이 〈자화상〉을 썼다면 〈참회록〉 또한 당신 시가 분명하오.”

“두 시가 같은 사람 것이라면 명확한 논리로 증명하시오!”¹⁸⁾

수사관과 죄인의 취조실은 한 순간에 문학 토론장으로 변한다. 와타나베는 두 시의 화자가 가진 외로움과 그들이 ‘욕된 왕조의 유물’ 즉 조선인임을 읽어내고, 〈참회록〉의 ‘만 이십사년 사개월’이란 구절이 의미하는 시인의 나이는 도항증명서를 받기 위해 창씨개명을 해야 했던 히라누마 도주의 작품임을 입증한다고 추궁했다. 주크박스 뮤지컬처럼 이미 씌어진 윤동주시를 나열하면서 작가의 시 해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서 이 추리소설의 수사관이 밝혀낸 사실은 바로 윤동주 연구자들의 작업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의 소설들마다 윤동주 시를 인용하면서도 시 자체의 해석보다는 창작 시기의 전기적 사실과의 대조에만 치중했다면, 이 작품은 히라누마 수사과정과 증거물인 시 분석과정에서 윤동주라는 사람 읽기와 시 읽기 간의 일치를 목격하게 해준다. 〈참회록〉의 ‘만 이십사년 사개월’이 창씨개명 시점을 의미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연구결과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취조자의 추리를 통해 범인

18)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 은행나무, 2012, 87쪽.

의 비밀에 접근하는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화자의 심리를 읽어내고 조선인임을 추리 해내는 것 역시 이미 작가가 운동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읽는 독자들과 달리 시 자체로부터 역으로 시인의 특성을 발견해 나간다는 점에서 진정한 문학 작품 감상의 순서를 보여준다. 시인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통해 시를 재단하는 과거 시교육의 대표적 사례가 이육사와 운동주의 저항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품부터 읽고 시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과정은 이 작품이 문학이란 무엇이며 문학 감상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와타나베는 소설의 화자인 동시에 시의 독자이다. 교토 변두리 작은 헌책방에서 성장한 그는 한 줄의 문장에도 배고파했고, 활자라면 닥치는 대로 읽어왔다. 문장을 통해 한 사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와타나베야말로 운동주에 대한 심문관이자 해석자로서 작품에서 부여한 역할에는 최고의 적임자였다.

그런데 후쿠오카 형무소에 와타나베말고도 운동주의 애독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죽은 스기야마였다. 스기야마는 검열관이었고 히라누마는 시인이었다. 두 사람은 시라는 고리와 책이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어 있었다. 검열관 스기야마는 운동주라는 시인의 내면을 검열하려 하지만, 오히려 시인에 의해 검열관은 변화되고 치유 받는다. 시인을 통해 치유 받는 이들은 또 있었다. 운동주가 글자를 모르는 조선인 수용수들을 위해 대필해 준 엽서를 읽어주면 거친 사내들도 눈물 흘렸다. 동료 죄수들은 모두 어느새 운동주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들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쓰다듬어준 것은 동주였다.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동주로 인해 조선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를 교환했고 희망을 나누게 되었다. 정치범들은 독방에 수용하고 일체 접촉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을 참고한다면 리얼리티

가 떨어지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인가. 스키야마는 그 엽서들을 한 장 한 장 검열했다. 이를테면 가네야매金山이라는 창씨명 때문에 놀림 받는 아들에게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구절을 빌어 달래준다.

“로미오 님, 로미오 님,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 아버님을 저버리고 그대의 이름을 거부하시어요. 당신 이름이 당신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군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잖아요. …… (중략) ……이름이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름이 뭐가요? 우리가 장미를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장미 향기를 낼 텐데……. (중략) …… 이름을 버리세요, 로미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요.”¹⁹⁾

위의 유명한 장면을 창씨개명과 관련되어 윤동주와 조선인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입하면 새로운 비유로 해석된다. 조선과 그 적국 일본이 내선일체의 기치 아래 하나가 되기 위해 조선인의 성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라는 것은 아버님 즉 조상을 저버리는 민족적 배신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이름은 이름일 뿐이니 이름을 버리고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너는 적으로 대접받지 않으리라는 회유가 줄리엣의 목소리로 거기 숨어 있다. 그러나 윤동주의 해석은 달랐다. 줄리엣의 독백은 이름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사실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실체와 상관없는 이름을 버리라는 줄리엣의 절규는 역으로 이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해준다. 이름을 버리면 사랑을 방해할 것은 사라지겠지만 끝내 이름을 버리지 못하여 그들의 비극적 사랑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름이 실존을 규정한다. “윤동주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히라누마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이 억지로 뒤집어씌운 가면일 뿐이니깐요.”²⁰⁾ 바로 이 말 속에 윤동

19)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 은행나무, 2012, 217쪽.

주가 운동주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한 후에도 <참회록>을 통해 뼈아프게 반성하던 운동주의 우리 이름, 우리 언어,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 히라누마라는 가면을 택하기보다는 운동주로 남기를 원했던 시인의 마음에는 드러난 사실을 넘어선 어떤 진실이 있다. 즉 작가는 운동주의 사실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운동주의 작품이야말로 독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실이다. 기존의 소설들이 사실의 재현 속에 진실을 담고자 했다면, 이 작가는 전기적 사실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아닌 운동주의 시 작품 자체를 최고의 자료로 보고, 텍스트 해석으로부터 허구적 사건을 끌어내는 픽션의 서사전략을 십분 활용하였다.

스기야마는 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스기야마 도잔은 책을 혐오했고, 책을 심판했고, 책을 불태웠으며 책을 흠뻑다. 그것은 책에 대한 증오인 동시에 불타는 동경이었다.”²⁰⁾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침내 밝혀지는 비밀은 스기야마가가 더 이상 검열관이 아닌 동주의 공모자요, 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독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죄수를 순화한다는 명분의 연날리기 행사를 이용해 동주의 시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담장을 넘었다. 형무소에서 연날리기란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한 낭만적 발상이지만 그렇게 동주의 시가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면 문학을 통한 식민지 현실의 수직적 초월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연날리기 장면은 ‘하늘’과 ‘바람’과 ‘시’라는 동주의 문학적 상징을 압축적으로 표상한다. 그러면 운동주에게 시란 무엇일까.

(가) “말씀 언(言) 변에 절 사(寺), 시(詩)는 말의 사원이지요.”

20)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 은행나무, 2012, 219쪽.

21)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2』, 은행나무, 2012, 51쪽.

(나) “시는 영혼을 비추는 우물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던져 진실을 길어 올리죠. 그리고 시로부터 위로받고, 시로부터 배우며, 시를 통해 구원받아요.”

(태) “시는 삶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시를 써왔어요. 잉크로 종이 위에 시를 쓰는 대신 온몸으로 거리에다 시를 썼죠.”²²⁾

‘시’는 사원이에요, 우물이며, 삶이다. (가)에서 ‘시(詩)’ 자를 파자하여 만든 ‘말의 사원’이라는 정의는 언어를 통해 종교적 심상을 표현한 동주의 시세계를 짧게 설명해준다. 독자들은 말의 사원에서 구원을 받고, 위로를 구한다. (나)에서 〈자화상〉의 시인은 이번에는 시를 우물에 비유한다. 윤동주에게 우물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그 거울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한편 시의 기능으로 위로와 배움,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한다. 따로 자신의 시론을 남기지 않은 윤동주의 작품으로부터 끌어낸 시의 본질에 관한 대화는 윤동주가 어떤 시인인지 동시에 윤동주를 빌어 작가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문학의 정의와 기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다)에서 시란 삶이라 주장하며 윤동주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라며, 스키야마 당신도 시인라고 말해 주지만 현실에서는 윤동주조차도 아직 시인이라 불리지 못했다.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집을 내지도 못했고, 그를 시인이라 부른 유일한 사람은 어쩌면 스키야마뿐이었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한 시들을 누가 간수해 줄 수 있겠어요?’라는 윤동주의 말은 스스로의 목숨도 지키기 힘든 전쟁의 시절에 시를 지킨다는 것, 더 정확히는 조선어로 된 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업인가를 보여준다. 사방이 짝 막힌 감옥에서 아무도 안 읽을 시를 왜 써야 하냐고 절망하는 윤동주를 향해 스키야마는 ‘시는 네가 살아 있다는 유일한 증명’이며, “만약 네가

22)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 은행나무, 2012, 236-238쪽.

이곳을 걸어 나가지 못하면 네 머릿속의 시들도 이곳에 영원히 갇히고 말아.”라고 스기야마는 말해준다. 육체적 사망이 아닌 시의 죽음이 운동주의 죽음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운동주는 살아남지 못했고, 생체실험의 희생자가 되었다.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라는 전보문은 사망통지 임무를 맡은 서신 검열관 와타나베가 발송했다. 그리고 시신을 인수하러 온 동주의 아버지와 숙부에게 “아…… 동주가 죽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²³⁾라며 동주의 최후를 전한 것도 와타나베였다. 사실과 허구를 오가는 팩션에서 뒤늦게 밝혀진 와타나베의 정체는 동주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한 젊은 간수를 소설의 화자로 호출한 것이다. 시를 쓰는 조선 청년에 대한 연민을 가진 미지의 일본인 간수야말로 운동주 최후의 날들의 목격자이다. 스기야마와 와타나베 같이 국적을 넘어 독자가 된 이들이 있어 운동주는 조선인만의 민족 시인을 넘어 인류의 시인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상을 앞세워 걸음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주장하며, 실제로는 침략과 전쟁을 일삼은 제국주의 일본의 위선 앞에서 그의 시는 진정한 자유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²⁴⁾

이제 이 작품은 검열관 와타나베의 ‘운동주 읽기’에서 ‘운동주 쓰기’로

23) 이 대목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동주의 유해를 인수해 온 당숙 윤영춘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 일본 청년 간수 하나가 따라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 ‘아하, 동주가 죽었어요. 참 압전한 사람이 …… 죽을 때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외마디 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운명했지요’하며 동정하는 표정을 보였다.”(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976, 113-114쪽.)

24) 일본에는 운동주를 추모하는 여러 모임들이 활동해 왔으며, 특히 이 작품의 배경지인 후쿠오카와 교토 등지에서 운동주 시비 건립운동이 진행중이다. (유양선 편, 『운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다시움, 2015 참조).

나아간다. 죄수 운동주처럼 종전 후 와타나베 역시 전범이 되어 갇혔다. 스스로를 유죄라고 생각한 그의 죄명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죄'였다. 속죄를 위해 형무소에서 목격한 일들을 운동주 대신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와타나베의 역할은 독자에서 기록자로 바뀐다. 전쟁이라는 악과 자행된 비인간적 행위들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 기억은 기록의 원천이요, 기록이 다시 기억을 만들어낸다. 앞의 기억은 개인의 상처 입은 기억이지만, 기록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의 기억은 역사적 책임감을 요구한다. 다음은 연합군 전범 조사관의 심문 기록 일부이다.

당신의 기록은 사실을 기록한 리포트입니까? 허구를 묘사한 소설입니까?

둘 다입니다. 저의 기록은 사실이기도 하고 허구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이 허구라면 그것은 근거 없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한 허구일 것입니다.

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소설 형식으로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불편해 합니다. 저의 기록은 허구이지만 어떤 경우엔 허구가 사실보다 더 많은 진실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참혹해서 나 자신조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구가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실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죠. 기록이 불태워지고 감추어졌다 해도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록이 소실되고 나의 진술이 사라져도 제가 본 진실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²⁵⁾

독자들이 읽은 소설은 결국 와타나베가 쓴 기록물이다. '사실'을 기록한 리포트인지, '허구'를 묘사한 소설인지 기록물의 성격에 대해 묻는 연합군 조사관에게 궁금한 것은 내용의 사실 여부지만, 문학적 관점에서

25)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2』, 은행나무, 2012, 288쪽.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갖는 무의미함에 대한 일종의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실 여부일 뿐,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문학이란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며, 사실과 쌍을 이루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그리고 문학이 추구하는 것 역시 '진실'임을 운동주를 빌어 작가 이정명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주의 소설에 비해 대중물로 폄하되는 추리소설, 혹은 정통 소설이 아닌 픽션으로 장르 구분하는 문학계에서 허구가 가지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작가는 '기록'과 '기억'을 구분하며, 진실은 기억해야 하는 것, 서술이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추리소설이라는 이 작가에게 가장 진지하고도 집요한 질문의 형식을 통해 운동주를 기억하고, 그의 시와 삶을 재해석한다. 그것은 '사실/진실'과 '기록/기억'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3-2. 사실과 허구의 경계 넘기: 유광수의 『운동주 프로젝트』

유광수의 『운동주 프로젝트』는 2006년 5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99일간 숨 가쁘게 벌어진 한일 양국의 첩보전을 다룬 픽션이다. 소설은 전체 4부, 3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부 '하늘 소리', 2부 '바람의 혼돈', 3부 '별의 노래', 4부 '시의 진실'라는 소제목들을 결합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제목이 드러난다. 각 장마다 사건일지 식으로 날짜가 매겨져 있고, 수많은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추리소설 형식의 전형적인 픽션으로 운동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사건의 배경에 운동주 시인의 면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결코 위대한 민족시인 운동주의 이상화가 아니고, 한 인간의 매 순

간 성실한 삶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인생이 걸어간 발자취이라면 삶은 걸어가는 발걸음이야. …중략…윤동주의 발걸음이 남긴 발자취를 두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있겠지. 부추길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의 발자취를 두고 그를 추켜준다고 그가 더 위대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를 폄하한다고 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그는 그냥 그일 뿐이니까. 매 순간 진실한 발걸음을 걸으려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하나의 성실한 삶이었으니까…….”²⁶⁾

주인공인 강형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윤동주의 ‘삶’을 들려주는 대화이다. 작품에 사용된 ‘삶’이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인생’이 결과라면, ‘삶’은 과정이다. 이는 ‘발자취’(과거완료)와 ‘발걸음’(현재진행)의 차이로도 설명된다.

작품의 서사 전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은 2006년 5월 8일 세종로 폭탄테러에서 시작된다. 강력8반 반장 방현진 형사는 이 사건이 일왕 히로히토의 생중손이자 차기 천왕의 유력한 후보인 후지와라 유이치를 겨냥한 음모라는 사실에 접근한다. 주인공 강태혁 형사는 세종로 사건의 폭파범이라는 누명을 쓰지만 체포 후 발생한 후속 테러 미수 사건으로 풀려난다. 후지와라 실종이 계기가 된 방형사의 결혼은 한일 양국의 상징적 결합으로 주목받게 된다. 일선에 복귀해 연세대 운동주 시비와 기숙사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과 수사하던 강형사는 납치된 아버지 강신양 때문에 운동주의 시모가모경찰서 조사 기록을 구하러 교토에 사는 신노우 옹을 찾아갔다가 뜻밖에 운동주의 유학 목적이 천황 암살이라는 비밀을 듣게 된다.

여기서 운동주의 체포와 죽음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이

26) 유광수, 『운동주 프로젝트 2』, Human & Books, 2012, 342-343쪽.

야기가 나온다. 고종사촌 송몽규의 독립운동 경력에 연루되어 운동주까지 잡힌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을 뒤엎고, 이 작품은 운동주 때문에 송몽규마저 풀려나지 못했다는 정반대의 가설을 내세운다. 조선독립운동을 한 것은 운동주이며, 김구의 지시로 창씨개명의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일본으로 건너와 황실과 가까운 릿교 대학을 택했다가 히로히토 천황의 숨겨진 쌍둥이 첫딸 아야코를 만나게 된다. 막후 세력들에게 발각된 운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로 보내지고, 고문 끝에 생체실험의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결혼 상대 후지와라 유이치가 운동주의 손자이며, 운동주의 손자가 일본의 천황이 된다는 비밀을 접한 방형사는 결혼식 날 또 한 번의 폭탄테러를 당한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두 주인공은 황실지하서고에서 마침내 시모가모 기록과 천황의 비밀일기를 발견한다. 조용히 보내줄 테니 다케시마(독도)를 양보하라는 공안44의 제안을 거부하고 비밀통로를 통해 탈출에 성공해 적들의 음모를 저지시킨 두 사람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강형사는 신노우 노인이 바로 운동주의 친구 강처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가의 상상력은 운동주의 유고시집 발간을 주도했던 강처중이 좌익으로 몰려 한국전쟁 때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을 가공해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어준다. 주지하듯이 강처중은 일본 유학을 떠난 운동주가 서울에 두고 간 〈참회록〉과 일본에서 편지로 보내온 〈쉽게 씌어진 시〉 등 5편의 시 원고 및 운동주의 책, 연전 졸업 앨범, 앓은뱅이책상 등 유품들을 보관하고, 해방 후 경향신문 기자로서 운동주의 시를 지상에 소개했다. 또한 운동주의 2주기인 1948년 유고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 과 시』 초간본 발간을 주도하면서, 정지용의 서문을 받아내고, 그 자신 발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5년판 중간본에서 발문이 삭제되고, 운동주의 시를 전한 최고의 공로자의 이름마저 잊혀진 것은 그가 좌익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익으로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중에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는 장덕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록을 뒤져보면 강처중의 남로당 활동은 언급되지만, 처형 자체를 보도한 기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²⁷⁾ 이 작품은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든다.

강처중은 한국전쟁 때 사형선고를 받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좌익인 사였던 그에 대해 역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사형선고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는 기록까지는 있다. 하지만 집행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갇혔던 시기와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가 가까웠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풀려났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살았을 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²⁸⁾

송우혜는 『윤동주 평전』에서 강처중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강처중의 부인 이강자 여사에 의하면 강처중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강처중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처형일을 기다리던 중 6.25가 발발해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의 서대문형무소 개방으로 6월 28일 딸의 백일날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집에 돌아온 후 두 달 정도 요양한 뒤 9월 4일에 소련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월북했다.²⁹⁾ 팩션의 상상력은 사실과 허구의 결합에 있다. 만약에 강처중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좌익인사로서 더 이상 남쪽에는 설 자리가 없고, 남로당 출신이 북에서도 제거된 현실을 고려하면 소련에서 돌아온 강처중이 머물

27)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490-499쪽.

28) 유광수, 『윤동주 프로젝트 2』, Human & Books, 2012, 306쪽.

29)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497-498쪽.

곳은 한반도 안에는 더 이상 없다. 여기서 다시 작품은 강처중의 일본 잠행과 야쿠자 일당과의 관계를 만들어 사건의 배경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작품 속 신노우 노인이 강처중이라는 상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강형사는 노인 뒤의 서화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황소머리를 한 사람이 쟁기를 쥐고 있는 그림의 구석에 흘려 쓴 한자를 어렵게 읽었다.

‘神農’

일본어로 읽으면 ‘신노우’. 노인의 이름이었다. ……중략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해야 했던 강처중은 그의 활달한 기백으로 일제를 비꼬아버렸다.

‘신노우’는 운동주의 평생의 친구, 강처중의 창씨명이었다.³⁰⁾

연진 학적부에서 확인해 보면 강처중은 ‘신농처중(神農處重)’으로 창씨개명했다. 신농은 곧 신농씨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고대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서…… 중략 …… 바로 성이 강(姜)씨였다는 것이다. 강처중이 그런 고대 중국 전설의 황제 이름을 자신의 창씨개명으로 쓴 것이 익살스럽다.³¹⁾

위의 인용문은 작품에 나오는 장면으로 강형사가 노인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바로 신농씨의 성이 강씨라는 사실이었다. 아래 인용문은 『운동주 평전』에 나오는 강처중 소개 부분이다. 이 기록을 토대로 작가는 강처중에게 신노우라는 일본 이름을 붙여 정체를 감추고 비밀의 공개를 지연시킨 것이다. ‘신노우’가 ‘강’이 될 때 강처중-강신양-강태혁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의 비밀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추리소설이 추구하는 비밀의 한 축은 주인공 강형사와 그의 조부이자 운동주의 친구 강처중의 관계가 밝혀지는 데 있다. 작품 표면에서는 테러 사건과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지만, 이면에서는 강처중과 운동주

30) 유광수, 『운동주 프로젝트 2』, Human & Books, 2012, 306-307쪽.

31)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484쪽.

라는 두 인물의 비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중의 존재는 작품이 밝히려는 비밀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중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신의 생존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윤동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노우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동주에게 불필요한 덧칠을 할 수는 없다. 과거의 돌맹이인 나는 벌써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야할 사람이다.”³²⁾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덧칠’이란 무엇일까. 실제로 윤동주의 친구 강제중이 시인 윤동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 작품 속에서 강제중이라는 인물은 윤동주에 관한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 강제중에게 주어진 역할은 비밀의 증인이다. 그 비밀이란 무엇일까.

작품은 여기서 동경 릿교대학 시절의 윤동주에 관한 두 가지 상상을 발휘한다. 하나는 흔히 천상 시인으로만 알려진 내성적이고 순수한 청년 윤동주가 실은 지하 독립운동의 조직원으로 천왕암살을 기도해 릿교대학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거기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암살수행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팩션의 출발점이 사실이라면 릿교대학이 어떤 곳이며, 윤동주의 당시 여인 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자.

릿교대학은 성공회에서 경영하는 미션계 사립대학이다. 성공회는 소화(昭和) 천황의 친동생이 유학중 성공회 신자가 되어 돌아옴으로써 황실의 배경 하에서 일본 기독교 교파 중 큰 세력을 갖게 되었고, 릿교대는 그런 튼튼한 배경 아래 경영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³³⁾ 그렇다면 릿교대학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부터 황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만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윤동주가 한 여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32) 유광수, 『윤동주 프로젝트 2』, Human & Books, 2012, 308쪽.

33)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320쪽.

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는 운동주 시집 초판의 강처중 발문에서 언급한 운동주가 사랑한 여성의 존재이다. 과연 한 여성을 사랑했다고 해도 동경 유학 시절의 일이라면 서울의 강처중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강처중이 운동주로부터 받은 편지에 있다. 그 안의 시 다섯 편 중 마지막 작품 〈봄〉은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편지 사연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나머지는 없애버린 까닭에 끝부분과 완성일자가 없이 전해진다.³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쓴 〈참회록〉부터 같은 편지에 쓴 〈쉽게 씌어진 시〉까지 일관하고 있는 우울과 비장함 그리고 향수의 어조와는 사뭇 다르게 ‘화사하고 즐거운 분위기’³⁵⁾의 이 작품을 접하고 운동주에게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한다. 작품 내에서 신노우가 받았던 편지에서 마지막 연은 “길게 늘어난 나는 / 햇살 따라 / 살곰 살곰 무늬를 가슴에 펼친다. 1946.6.9.”였다. 신노우는 마지막 문장의 ‘무늬[縞]’가 ‘아야코[彩子]’ 즉 히로히토의 버린 딸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유고시집 출간을 주관한 강처중이 마지막 연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신노우 노인 즉 강처중에 의해 밝혀지는 비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노우 노인은 강처중이다.
- (2) 강처중은 강신양의 아버지이고, 강태혁 형사의 할아버지이다.
- (3) 운동주와 천황의 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고, 손자는 후지와라이다.

34) 리교대학 리포트 용지 여섯 장에 세로로 쓴 시 다섯 편 중 다른 작품에는 모두 완성일자가 적혀 있으나 유독 『봄』에만 누락되어 있다. 왕신영 외 편,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전집』(증보판), 민음사, 2002, 182쪽.

35) 송우해도 이 작품의 분위기와 숨은 스토리에 주목했다. 『운동주 평전』에 의하면 동경에서 만난 여성은 동경에서 성악을 전공한 박춘혜로 추측된다. 송우해, 『운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354쪽.

이 비밀에 따르면 윤동주가 일본인 여성과 사이에 아이를 낳고,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의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실험의 희생이 되어 죽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순결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다. 마치 예수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서구의 팩션처럼 기존의 상식을 깨뜨린 작가의 상상력에 반발도 예상된다. 윤동주의 시 뒤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 사례도 이 작품이 처음이다. 물론 작가가 추가한 〈봄〉의 마지막 연은 서사 전개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문맥상 앞 연에서 보여준 〈봄〉이 가진 화사하고 신비한 시적 분위기에 어울린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윤동주의 시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 작가가 준비해 둔 마지막 반전이 숨겨져 있다. 윤동주가 고향 용정에 간 틈에 아야코를 차지하고, 윤동주를 특고에 밀고한 배신자이며, 일본의 막후 세력과 야합하여 권력을 누려온 권민욱의 비밀을 강형사는 마침내 밝혀낸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방현진은 목숨을 잃는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서사는 끝이 나고 우리가 아는 윤동주의 진실은 지켜진다.

3-3. 민족 시인과 인류의 시인 ‘사이’: 구효서의 『동주』

민족시인 윤동주. 그리고 저항 시인 윤동주. 이 둘은 윤동주에게 주어진 가장 널리 알려진 수식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윤동주의 삶을 민족주의적 이념과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만 한정하게 만들고, 그의 시를 문학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해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구효서의 『동주』는 윤동주의 비밀 원고를 추적하면서, 시인의 언어가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지켜내려는 정신을 넘

어 ‘시어’를 지키려는 것이며, ‘운동주의 죽음은 시의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엄연히 존재하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말들은 대개 비밀이나 중요한 사실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 비밀의 질량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³⁶⁾라는 말대로 비밀문서의 존재가 작품의 서사를 끌어가는 힘이란 점에서 이 작품은 팩션의 추리소설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블로그소설이란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작가 구효서는 avocado105라는 아이디로 2011년 2월 7일부터 총 101회에 걸쳐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를 진행했고, 블로그 공간에서 댓글을 통해 이뤄진 작가와 네티즌 간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독자들이 운동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

『동주』란 제목과 달리 이 작품은 단순히 운동주를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은 아니다. 운동주를 비롯해 소무라 무케이(宋村夢奎), 즉 송몽규와 같은 실존 인물이 다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분명한 허구이다. 실존인물들은 작품의 후경에 물러서 있고, 작품 전경에서는 가상인물 김경식이 행방불명된 친구 시계하루를 찾는 단서를 구하러 운동주의 유고를 추적하는 이야기이다. 유고 발견에는 실패하지만 그 과정에서 획득한 이타츠 푸리 카의 글을 통해 운동주의 죽음의 비밀에 접근하는 과정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다. 독자 가운데는 “이건 작가님의 소설인거죠? 얼마만큼의 역사적 진실이 내용의 바탕에 깔려있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어서 말이죠. ㅋㅋㅋ 좀 생똥맛죠?(햇살비, 7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설은 ‘사실’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가 생각하는 ‘역사적 진실’이란 ‘소설적 진실’과는 다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작가 역시 댓글에서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돼 가는 것일까... 이런 자문도

36)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2011, 118쪽.

자꾸 하게 되고요. 이미 존재하는 역사적 진실을 굳이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이라면 소설을 쓸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7회, 2011/02/15 12:02)”라는 고민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다. 역사적 진실이 이미 있는 것이 아닌 ‘형성돼 가는 것’이라면 집필중인 작가에게도 이미 가지고 있는 소설적 진실은 없다. 소설쓰기란 도대체 역사, 민족, 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진실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동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운동주는 전면이 아닌 후경에 존재할 뿐이다. 작가는 왜 ‘동주’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고 싶었는가에 대해 ‘일찌감치 그에게 반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운동주의 시가 아니라 사진에 박힌 그의 모습, 얼굴 눈 빛 미소에 반했다. 다른 하나는 ‘운동주는 왜 죽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이 질문이 자연인 윤동주의 생물학적 사인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문제가 아니라 시인 윤동주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될 때, 즉 “심장이 멈추어 생의 종말을 고하는 게 자연인이라면, 시인은 무엇이 멈추어 존재의 종말을 맞이했을까. 무엇이 그를 죽게 했을까”라는 물음은 소설이 추구하는 진실로 향하는 비밀의 문이 된다.

또한 이 작품은 ‘말’의 서사이다.³⁷⁾ 총 12장으로 구성된 작품의 내용은

37) 윤동주가 민족시인으로 추앙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말 암흑기에 우리말로 시를 썼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말’이란 조선어인가, 한국어인가, 아니면 국어인가. 국어 교과서 속의 윤동주 시가 나오면 그것은 국어다. 그러나 작가 구효서가 아래 몇글에서 ‘국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 작품의 동주는 ‘우리말(국어)’가 아닌 ‘말(언어)’로 시를 쓰는 사람이 된다. 이는 동주를 민족시인으로 볼 것인가 인류의 시인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뒤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구효서 : 국어. 이 말은 영국에도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없는 말일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각각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쓸지언정 국어라고 쓰지는 않지요. 일본 과 한국에서 특히 국어라는 말을 쓰는가 봅니다. 이 소설이 그러한 문제의식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 시인, 언어, 국가, 국민, 식민지의 언어, 제국주의의 언어, 삶, 죽음을 다루니까요. 그리고 국어란 정

첫 번째 장인 ‘더듬는 말’에서 시작하여, ‘참람한 말’, ‘사이의 말’, ‘숨은 말’ 등을 거쳐 마지막에 ‘꽃의 말’로 마무리된다. 작품의 화자인 김경식과 삽입된 노트의 필자인 요코/이타츠 푸리 카 두 인물이 글쓰기를 통해 정체성 정립을 촉발시킨 계기에 바로 운동주의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에서 ‘나’는 유일한 화자이지만 이야기를 재구성한 ‘소설’에서는 복수 화자가 가능하다. 이 소설에서도 세 명의 ‘나’가 등장한다. 외화의 1인칭 화자인 ‘나’, 재일교포 3세 김경식(일본명 아마가와 겐타로)는 저술 계약을 하면서 어떠한 언어로 자신의 글을 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어나 한국어냐가 아니라, 일본어로 먼저 쓰고 번역할 것인가 처음부터 한국어로 쓸 것인가 사이의 선택이었다. 자신의 언어 능력은 두 번째 문제였다. ‘내 글이 번역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다.’에서 보이는 경식의 심경은 시인 운동주의 죽음을 문제 삼는 이 글의 주제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운동주의 생물학적 사망이 아닌 시인으로서의 사망 원인은 자신의 한국어 시를 강제로 일어로 번역해야 한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결말을 고려할 때 경식이 뒤늦게 직접 한국어를 배워 쓰기로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일종의 액자구조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번째 ‘나’는 오래 전 종잇장에 존재하는 내화의 화자이다. 첫 회부터 등장하는 의문의 종이들 중 하나는 연필, 다른 하나는 잉크로 쓴 것이다. 연필은 15세 텐도 요코의 글씨이고, 잉크는 ‘언어의 비단’이란 별명을 가진 40대 중년인 이타츠 푸리카의 글씨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둘은 분명 한 사람이며, 동일한 인물이면서도 종이를 쓴 시점에 따라 별도의 화자처럼 기능한다는데 특성이

확히, 언어 내셔널리즘이 반영된 용어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5개 국어’라고 쓰지 않고 ‘5개국 어’라고 씁니다. 이 소설은 말(언어)에 관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중간제목을 전부 <.....말>이라고 달 예정입니다. 이상은 까도남처럼 말하는 구효서의 재미없는 말이었습니다. TTT(12회, 2011/ 02/22 18:18)

있다. 필기도구만이 아니라 필체도 다르다. 전자는 희미하고 어지러우며, 후자는 선명하고 가지런하다. 희미함과 선명함은 두 종이 사이의 30년이란 시간적 거리를 나타내지만, 필체는 연령과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숙한 히라카나와 가타가나로 쓴 요코의 연필 글씨와 로마자로 쓰여진 이타츠 푸리 카의 아이누어 펜글씨는 김경식의 한국어 인쇄체로 번역된다. 번역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경식은 망설였던 것이다.

이 작품이 추구하는 언어의 문제는 이렇게 번역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문식력과 정체성 정립의 관계로 발전한다. 문식력은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과 관계된다. 이제 막 글자를 배운 15세 요코는 동시에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글쓰기를 배우면서 양부인 사토로부터 받은 성적 폭력과 하녀 같이 고했던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고백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요코의 글쓰기는 성찰과 치유의 글쓰기이다.³⁸⁾

작가의 상상력은 실존인물인 윤동주와 허구적 인물인 요코를 어떻게 관련시키는가. 사료와 증언에 의하면 ‘조선독립운동’이란 죄목으로 운동

38) 문학공간으로서 블로그의 존재 의미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소통에 있다. 블로그는 작가의 진실과 독자의 진실이 만나는 공간을 제공한다. 작가와 독자 간의 대화는 아래처럼 작품 표면에 쓰여 있지 않는 감정에 대한 성찰로 발전된다.

왕눈이 : 기구한 운명을 지닌 여자군요. 벌써부터 너무 슬퍼지네요. 한 남자의 폭력으로 두 여자가 불행해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10회 축하드립니다.(10회, 2011/02/18 10:05)

햇살비 : 요코의 폐약에도 반응 할 수 없을 만큼 요코의 엄마는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텅비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도 아니 해야 한다는 것조차 없어져버린. 살아있지만 이미 정신세계는 죽어버린.... 글씨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남자로 인해 두 여자의 삶이 죽음이 되어버린 집 같네요.(10회, 2011/02/18 13:21)

구효서 : 한 남자가 한 남자에게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사회’ ‘역사’ 속에서의 ‘남자’는 그 이상으로 괴물스럽게 확대됩니다. 아, 이럴 때의 ‘남자’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어쩌면 그 둘 다?(10회, 2011/02/20 12:05)

주와 송몽규를 체포한 특고 경찰은 1년 전부터 비밀리에 두 사람을 감시하며 누구를 만났는지 행적을 조사하고, 대화를 엿들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송몽규의 하숙 주인처럼 경찰의 압력으로 감시를 도와준 이들이 있다. 구효서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아파트 내부에서 누가 운동주 감시를 도왔을까를 추리하며, 감시자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역할이란 점과 깊은 관찰은 종종 연민과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요코는 타케다 아파트³⁹⁾의 사동(使童)이자 형사의 달콤한 빙수에 넘어가버린 조선인 하숙생 히라누마의 어린 감시자였다. 연행되는 그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본 것도 요코였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요코의 글에 동주가 자주 등장하는 까닭에 그에 대한 15세 소녀 요코의 감정이 깊어감을 목격할 수 있다. 요코는 동주와의 첫 대화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를 알아가면서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글쓰기였다. 세상에 태어나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중략…비로소 의지라는 것을 내어 뭉가를 추구할 줄 아는 요코가 돼가고 있었던 것이다. 피하고 숨는 것과는 정반대쪽 현상이었다. 역시, 동주 때문이었다.”⁴⁰⁾ 동주가 요코를 변화시켰음을 이타츠 푸리 카의 나이에 동주를 추억하며 깨닫는다. 독자들 역시 작품을 통해 동주를 추억하며, 요코의 심리적 변화와 인간을 변화시키는 시인 동주의 힘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한다. 작가의 땀글은 소설 본문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각주의 역할을 수행한다.⁴¹⁾

39) 이곳은 주지하듯이 실제로 운동주가 교토 유학시절 거주한 아파트로 주소는 ‘좌경구(左京區) 전중고원정(田中高原町) 27 무전(武田: 일어 발음은 다께다)’이다. 1936년에 완공되어 약 70명의 하숙생을 입주시킨 당시로서는 현대식 아파트이다. 1944~45년경 화재로 전소 후 현재는 그 자리에 교토예술단기대학이 서 있다.(송우혜, 『운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360쪽.)

40)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2011, 58-59쪽.

41) 노을 : 요코가 사랑에 빠졌군! ‘동주’ 그 조용한 사람의 힘! 그 힘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효서 소설의 독자는 윤희주 시의 독자들이다. 윤희주는 문학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화두이다. 구효서라는 작가가 윤희주의 말과 죽음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을 뿐이다. 소설 『동주』라는 블로그공간은 윤희주를 읽는 이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임이다. 블로그에서 벌어지는 대화적 관계에서 ‘말의 서사’라는 이 블로그소설의 내용과 블로그소설의 소통 방식간의 상동성이 드러나면서 이 소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말의 서사’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윤희주의 죽음에 대해서 작가는 ‘시의 죽음’이 ‘시인의 죽음’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시인이 죽어서 시가 죽은 것이 아니다. 혹은 시인은 죽어도 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뜻은 “시인 윤희주는 이미 시모가모 경찰서에서 죽은 거였다. 그리하여 시인 윤희주의 존재란 그의 시가 조선어였을 때까지만 온전하다는 주장을, 나는 감히 내세우려는 것이다. 검사국과 재판소와 형무소로 이동해 죽어간 건 그의 빈 육신이였다.”⁴²⁾라는 말 속에 있다. 즉 윤희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의 생체실험 때문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의 강제적인 번역 작업으로 자신이 조선어로 쓴 시가 일본어로 변질되었을 때 죽었다고 작품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남아 이렇게 소설이 되고 있는 걸까...(10회, 2011/02/21 13:57)

파랑토끼: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게 동주 때문이네요.(10회, 2011/02/21 16:15)

구효서: 소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동주 때문. 동주의 무엇 때문일까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동주라는 ‘남자’ 때문만은 아닐 테고... 그냥 동주도 아닌, 아, 뭐랄까... 요코 자신이 투영된 존재로서의 동주 때문이라면 말이 좀 될까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요코에게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든 것이 동주의 무엇 때문일지.(10회, 2011/02/21 20:54)

42)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2011, 118쪽.

시인의 죽음은 뭘 뜻하는 걸까. 그 조용했던 죽음이 웅변하는 것은 뭘까. 만화(萬花)가 만개하므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꽃술이라면, 각각 다른 존재가 제 모습을 오롯이 보전할 때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소리칠 필요가 뭐 있을까. 알아달라 뽐낼 필요가 뭐 있을까. 묵묵히, 의연히, 그렇게 피어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을. 피어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이치를 따르고 지키는 신념인 것을. 조선 시인이 조선어로 시를 쓰는 것, 일본 시인이 일본어로, 만주 시인이 만주어로, 아이누인이 아이누어로 시를 쓰는 것…… (중략)…… 나 이타츠 푸리카가 보기에 동주의 죽음은 저항인의 저항적 죽음이 아니라, 시인의 시적 죽음이었다. 그의 망설임과 부끄러움은 연약한 이의 성정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었으며 고요한 자기응시였다.…… (중략)…… 시가 죽을 때 그를 동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마침내 민족 시인을 넘어 그를 인류의 시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⁴³⁾

작품 속의 일본인 독자 요코, 아니 아이누인 독자 이타츠 푸리카에게 운동주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우리에게는 민족시인인 운동주가 왜 그녀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한 시인의 죽음을 저항적 죽음이 아닌 시적 죽음으로 파악하고, 한 시인을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저항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넘어 보편성을 추구한 인류의 시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작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이다. 그것은 작품 속의 '나', 김경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동주가 간도를 그리워했고, 요코가 평생을 걸려 홋카이도에 도착했듯이, 재일교포 3세로서 또 다른 '사이의 섬'에 살아야 했던 그가 운동주를 통해 자신의 언어를 찾고, 자신만의 영토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다. '사이'의 독자들에게 운동주 읽기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도 운동주를 읽으며 생각한다. 누구의 영토도 아니면서 모든 이의 영토였던 간도를 떠올린다.…… 중략…… 그는 한 국가와 민족과 모국

43)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2011, 397-398쪽.

어에 치우친 애정으로서가 아니라, 깊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만화(萬花)의 숲을 이루기를 인류의 시인으로 염원했다.”⁴⁴⁾라고 소설 마지막 장에서 김경식은 말했으며, 작가는 이 장에 ‘꽃의 말’이란 제목을 달았다.

구효서의 논리는 두 개의 층위를 갖는다. 먼저 윤동주가 민족시인이냐 인류의 시인이냐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조선어를 시를 쓰면 민족시인이 되고, 같은 방식으로 제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자국어 시를 쓸 때 꽃이 모여 숲을 이루듯 인류의 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어를 억지로 국어로 삼아서 조선인이나 만주인이나 아이누인이나 황국신민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는 시인의 언어는 조선어도 국어도 아니라 시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은 ‘사이에’ 존재한다. 구효서는 윤동주가 간도 출신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사이’라는 개념을 끌어내었다. 윤동주는 반도의 시인이거나 간도의 시인이 아니라 ‘사이에’ 존재할 때 인류의 시인이 될 수 있다. 윤동주의 형상을 민족 저항시인에서 풀어줄 때 일본 열도의 독자들 역시 윤동주의 시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⁴⁵⁾ 한국적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지향하는 인류의 시인으로서의 길

44)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2011, 411쪽.

45) 윤동주 시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과 애정은 1980년대 오오무라 마쓰오 교수를 비롯한 소수 연구자들에서 시작되어, 90년대 이후 작품 번역이 나오면서 문인이나 일반인 독자들로 확대됐다. 이 당시 분위기는 김우규의 『윤동주를 보는 일본인의 시각』과 일본 문학 교과서에 실린 이바라키 노리코의 수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이누가이 미즈히로의 『이름도 없는 윤동주와 함께 있고 싶어』 등 7명의 일본인이 쓴 『일본 지성인들이 사랑하는 윤동주』(민예당, 1998)를 참고할 수 있다. 윤동주 시 읽기 모임이 정기화되고, 시비 건립을 통해 전후 속죄와 화해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 민족에 대한 속죄 측면에서만 머문다면 이는 윤동주를 민족 저항시인으로 보는 시각과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다. 이후 윤동주 시의 종교성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 독자의 독자적인 작품 해석도 나오기 시작한다. 윤동주 70주년 기획으로 나온 류양선 편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며』(다시울, 2015)에는 시인 아이자와 가크의 『시인의 목숨』 등 일본인 독자 8인의 글이 수록되어 윤동주 시가 일본

이 국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번역할 수 없는 고유성을 인식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운동주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여러 작품 가운데서 『동주』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결론

운동주의 소설적 형상화에는 두 개의 계보가 있다. 첫째, 시인 운동주의 생애를 온전히 재구하려는 데 목적을 둔 작품들이다. 운동주를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인 최인수의 『소설 운동주』부터, 안도섭의 『운동주 상처 입은 혼』, 안소영의 『시인 / 동주』와 같은 작품들은 현대문학 연구나 송우혜의 『운동주 평전』 등에서 구성된 민족시인 운동주 형상화 및 독자들이 가진 기존의 운동주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평전이 가진 사실을 토대로 살을 붙여 숨 쉬게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 대부분 운동주의 작품을 삼입해 시와 소설의 결합이라는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려했지만 소설이 가진 허구라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동주의 시대가 가진 특성이나 당시 우리 청년들의 희망과 좌절을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사실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결과이다.

둘째, 사실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운동주를 그려내면서 운동주는 지금 우리에게 누구인가, 운동주라는 상징 혹은 기호를 통해 문

에서도 널리 수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같은 책에 수록된 김혁의 「더기 위의 시인의 집」 등 3편의 글을 통해 중국 연변 지역에서의 운동주의 재발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학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작품들이 팩션의 출현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와 함께 탄생했다.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은 시인은 누구인가,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운동주의 시와 삶을 재해석한다. 추리소설은 이 작가에게 가장 진지하고도 집요한 질문의 형식이다. 그것은 '사실/진실', '사실/허구', '기록/기억'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유광수의 『운동주 프로젝트』 역시 과거와 현재,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블로그 소설인 구효서의 『동주』는 언어란, 특히 문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블로그 공간의 독자들과 운동주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대화를 나누면서 블로그 안에서 또 하나의 '말의 서사'를 구축했다. 그리고 운동주를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저항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넘은 보편성을 추구한 인류의 시인으로 그려내었다.

끝으로 세 작품에 사용되는 추리소설적 기법이 운동주 형상화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 작품에서 모두 운동주와 관련된 잃어버린 기록들을 찾고 있다는 공통점은 서구의 팩션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운동주가 감옥에서 쓴 시, 운동주의 시모가모 경찰서 조서, 운동주의 번역 원고 등을 찾는 과정에서 운동주란 누구인가가 밝히는 것이 각 소설의 구조이다. 사실에 허구를 조합하는 팩션의 원리대로 오늘날 실제 공개된 경찰서 조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번역 작업을 목격했기에 한 때는 존재했던 번역 원고, 감옥의 운동주라면 충분히 머릿속에서라도 써서 간직할 만한 최후의 시편들을 추적하는 이야기는 시인의 생애를 추적하며, 언어와 시의 본질을 묻기에는 매우 적절한 발상이다. 또한 일반적인 추리소설 독자들이 추구하는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나 서스펜스만이 아닌 인문학적 관심을 충족시킨다.

그런데 세 작품이 사용하는 추리 소설의 기법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흔히 추리소설의 고전적 유형을 구분하면서 안소니 바우처가 말한 수수께끼 풀기형, 하드보일드 형, 순수문학형, 추적형, 범인찾기형 추리소설 등으로 나누는데, 세 작품을 비롯한 오늘날의 추리소설은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하기 힘들다.⁴⁶⁾ 다만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관계를 파헤치며 추리소설을 일반적인 순수문학과 융합시키는 순수문학형의 경우처럼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은 탐정 역할을 맡은 화자 와타나베가 살인범 찾기보다는 피해자 스기야마나, 용의자 운동주 인물의 심리 분석과, 인물간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 반전에서도 범인이 누구인가보다도 운동주와 스기야마가 공모해 연날리기를 통해 시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큰 비밀이 된다. 대중성을 추구하는 기존의 추리소설과 순수문학간의 경계를 허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구효서의 『동주』도 추리소설이냐 순수소설이냐는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여기서도 복수의 1인칭 화자를 등장시켜 내면 심리 분석과, 인물간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실종된 친구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추적 방법인 운동주 번역문서 찾기가 소설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현대적 팩션의 원조인 움베르코 에코의 『장미의 이름』과 유사하다. 두 작품 모두 추리소설 등장인물의 3요소인 탐정, 피해자, 범인 중에서 ‘범인’의 비중은 작품에서 약화되고, ‘탐정’의 성격도 범행을 밝히기보다는 화자로서 바라보는 이, 혹은 독자로서 문서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유광수의 『운동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서사 내에서 탐정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 작품의 주인공 형사는 머리로 추리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화려한 주인공으로 거친 행동을 하는 하드보일드형의 추리소설의 인물이며, 또 탐정 중심 추리소설의 전통을 상대적으로 지켜나간

46)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 『추리소설 쓰는법』, 고정기역, 보성사, 1987, 23-32쪽.

작품이다. 반면 앞의 두 작품은 전문적인 탐정이 아닌 간수병이나 대학 생에 불과한 인물들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탐정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특 성이다. 물론 그들에게는 훌륭한 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질, 즉 치 밀한 관찰력이나 인간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무엇보다도 자료를 해독 할 수 있는 문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탐정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보다도 바로 '동주의 힘'이 다. 모든 변화가 동주를 읽고 동주에 빠져들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동주 로 인해 일어난 자신들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세상을 다시 이해하는 과 정은 이 작품들이 단지 '동주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동주가 '나에게 동주 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 달게 된다.

누군가는 '윤동주 시는 곧 시인이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윤동주 시 인은 자신이 곧 시이다.'라고 했다. 시 자체가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대로 보여주고, 시인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시와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윤동주를 시로 비유한 사람들이 있다면, 윤동주를 하나의 이야 기로 이해하려는 이들이 바로 이번 논문이 분석한 작품의 작가들이다. 어쩌면 윤동주의 삶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안다고 그의 시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윤동주의 행적을 알고 그의 시를 저항 시로만 읽는 것은 의도적 오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윤동주 해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전기적 연구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윤동주 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품이 가진 사실성 여부만 본다면 감옥 안에서 시를 적어 하늘 높이 바람에 날려 보내는 연날리기는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인 윤동주에 관한 것이라면 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동주 시에 결구를 덧붙이고, 윤동주 손자가 천

황이 된다는 발상을 서사 전개에 끼워 넣었다가는 그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비판받을 지도 모르지만, 결국 작품 곳곳에 숨겨진 운동주의 그림자에서 작가의 애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주를 형상화한 이 소설들은 오늘의 독자에게 운동주의 현재적, 아니 보편적 의미, 그리고 시와 언어의 가치를 묻는 문학적 대화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시와 언어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증명하는 도구요, 운동주는 자신의 생애와 시작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고, 그 새로운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한민족과 전세계의 독자들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이 그 대화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2011.
안도섭, 『윤동주, 상처입은 혼』, 글누림, 2014.
안소영, 『시인/동주』, 창비, 2015.
유광수, 『윤동주 프로젝트 1,2』, Human & Books, 2012.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 1,2』, 은행나무, 2012.
조한주, 『저항시인 윤동주 그 죽음에 대한 보고서』, 남도, 1990.
최인수, 『소설 윤동주』, 좋은글, 1992.

2. 논문과 단행본

- 박정세, 「한국 대학교회의 태동과 변천-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쁨으로 선을』, 킹덤그레이스, 2016, 234-261쪽.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송희복, 「모국어의 순교자여, 창밖에 있거든 두드려라」, 유양선 편,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다시울, 2015, 278-293쪽.
왕신영 외 편,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중보판), 민음사, 2002.
유양선 편,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다시울, 2015.
유 영, 「연회전문 시절의 윤동주」,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976, 122-126쪽.
이경재, 「사이의 향락」, 『자음과 모음』, 2011 겨울, 560-574쪽.
장영우,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진실」, 『월간 문학』 558호, 2015.8, 272-284쪽.
<그것이 알고 싶다(727회) - 윤동주, 그 죽음의 미스터리>, 문화방송, 2009.8.15.

Abstract

A Study on the Novel about the Poet, Yun Dongju^{*}

Kim, Myung-Seok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imed to review the literary figure aspects of the poet Yun Dongju. There are two types in the novel about the poet, Yun Dongju. The one is that Yun played the main character directly in the colonial background, and the others are fictions tracking the mystery of the death at this point.

The first type could not be differentiated the critical biographies or previous researches. From Choe insu's "Yun Dongju", the first novel about Yoon Dongju, to An doseop's "Yun Dongju, Wounded Soul", and An Soyeong's "The poet/Dongju", these works reproduce the image of Yun Dongju as a national poet.

The second type ask Who is Dongju to us now, rather than historical facts more free imagination. Yun Dongju is the symbol of literary truth. Since the advent of fiction some authors described the real life of Dongju by using technique of mystery stories. Lee Jungmyung's "The Investigation(Star in the breeze on)" searched the problem of boundary between facts and truths, asked who the poet, and whats the meaning of writing. Yu Gwangsu's "Yoon Dongju Project" also transcending from past to present, between fact and fiction by the liberal imagination. Ku Hyoseo's "Dongju" described Dongju not only a poet of ethnicity but also a poet universality. He did not limit to a national resistance, and drew as a poet of humanity in pursuit of universality.

At the conclusion compare and analyse three works. The structure of the mystery is not just for interest of readers, but also the dialogue about the life and poetry of Dongju, and communication with contemporary readers.

(Key Words: Yun Dongju, Lee Jungmyung, "The Investigation", Yu Gwangsu, "Yun Dongju Project", Ku Hyoseo, "Dongju", fic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Rearch Grant of 2013.

논문투고일 : 2016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월 30일

수정완료일 : 2016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17일